



첫번째 이야기

3일 간의 기적 같은 감동

[2020 베트남 아웃리치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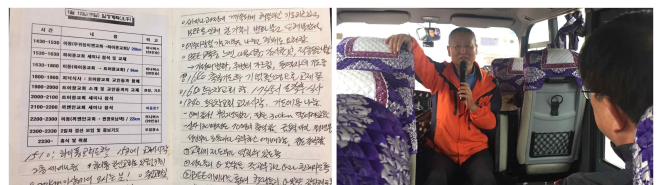
베트남 교회에서 처음 만난 성도들과 BEE 학생들, 비록 아무 말도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 맞닿은 가슴과 잡은 손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우린 소통했고 서로 눈물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준 것이 없는데..... 우리를 반기고 웃고 악수하고 안고 너무 많은 것을 받았다고 서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신짜오’, ‘신감언’, ‘응원엿!’ 발음도 분명치 않았던 이 세 마디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깔깔거리며 웃기도 했습니다. 급할 땐 그냥 한국어로 말하면 베트남어로 대답했지만 우리는 서로 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한 글자도 읽어낼 수는 없었지만 같은 디자인, 같은 색깔 표지의 갈라디아서 교재만으로도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있기만 하면 어느새 바나나 한 아름, 사과대추 세 봉지, 케오 한 자루 등을 갖고 오셔서 자꾸자꾸 주시고, 점심 때 1시간 반 오토바이를 타고 오셨던 목사님은 저녁에 또 와 계셨습니다. 공안에게 5~60번을 끌려갔다가 오셨다는 데도 목사님의 미소는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향자 교회, 록디엔 교회, 도슨 교회, 하이퐁 교회, 투위아이엔 교회, 그리고 다시 하이퐁 교회, 트엉창 교회, 끼엔안 교회.....먹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먹고 찬양하고 기도하고.....빡빡한 일정으로 인해 마치 유명 아이돌 그룹이 행사를 뛰듯 여러 교회들을 누볐는데...점점 우리들의 표정은 지치기는커녕 오히려 밝아져만 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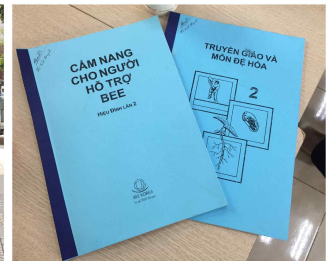
체구가 왜소한 교회 사모님은 심한 버스 멀미로 고생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북쪽 여기저기를 버스로 이동하시며 5~6개의 세미나를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여쭙보니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너무 재미있어서 그렇다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그렇게 헌신할 만큼 폭 빠진 재미는 어떤 것일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되었고 ‘나의 남은 인생에 쏟아 부을 재미있고 행복한 일은 과연 무엇일까?’ 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제가 재미를 느끼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일을 따라가게 해 주세요.’



일정을 마치고 이동을 위하여 버스에 탔을 때는 고작 2~3시간 함께 있었다고 우리가 타고 떠나는 버스에 달라붙어 손 흔들고 인사하며 아쉬워하는 그들에게 감히 ‘또 만나요!’, ‘헨갑라이!’, ‘See you again!’으로 마지막 인사를 했고, 문득 ‘아! 하나님 저 또 여기 올 수 있을까요? 저 또 여기 와서 이들의 눈동자를 볼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요?’ 아직 아무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기도한 적도 없고 고민해 본 적도 없는데..... 왜 제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지..... 3일 간의 짧은 시간에 일어난 베트남에서의 기적 같은 소통, 감동, 공감, 사랑, 존경!! 함께 하나가 되는 이 감동은 도대체 뭘지.....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하이퐁 교회

에서 주일예배를 드리며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기적의 감동이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으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지치지도, 피곤하지도 않는 새 힘을 주셔서 한 사람 한 영혼을 살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어 하는 행복한 사람들 되게 해 주세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글쓴이: 서현주]

현재 온누리교회 서빙고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BEE는 작년 3월 말씀으로 부터 오는 지혜를 목말라 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온비아를 시작하게 되었고 베트남 아웃리치 이후 전 세계에서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BEE의 사역에 은혜를 받아 기쁨과 소망을 품고 더 즐겁게 BEE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글쓴이: 서현주, 정리: 이경주, 편집: 최선- 'BEE수'기자]

BEE의 보석찾기

1 원종덕집사

* 이번 주 보석 찾기 주인공입니다.



태국 거주 중 낳은 둘째 딸이 생후 1년 후 지체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합병증까지 와서 당시 저는 절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오셔서 믿을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시며 죽어가는 딸과 저희 가정을 살려주셨습니다. 과거 다양한 국가들에서의 근무가 하나님께서 BEE 사역을 위해 준비시키셨던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올해부터 양재 BEE 기도모임에서 본부, 일본, 몽골, 미주지역 테이블 리더를 맡았는데 다소 생소한 지역이지만 선교지에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싹트고, 열매 맺도록 예수님 마음을 품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온누리 교회 분당B 공동체 순장으로 섬기고 있으며, 가족은 아내(박은신 집사)와 두 딸이 있습니다.

* BEE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BEE 소식

1. 2020년 하나님의 “준비하라”의 음성에 따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준비하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암 4:12).”
2. 신종코로나19의 감염 확산으로 인해 예배도, 사역도, 기도모임도 잠정적으로 중단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 말씀과 기도가 쉬지 않으며, 더욱 영과 육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3. 올해도 2월부터 시작한 성경 통독이 출애굽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감동이 모든 테이블 가족에게 가득하기를!! 응원하며 축복합니다.